

## 임영신과 함께 평화여행을



글\_양희창 제천간디학교 교장

휴대폰이고 여권이고 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곧잘 빠트리고 다니는 실수투성이, 든든한 후원자 하나 없어 푼돈을 헤아려보아야 하는 가난뱅이, 뒤를 받쳐 줄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나 홀로 게릴라, 게다가 하루 종일 보살피 주어야 하는 아이가 셋이나 딸려 있는 아줌마, 영어를 제대로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확실해서 이론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녀, 임영신.

그런데 전 그녀가 쓴 이 책을 읽는 동안 길에서, 전철 안에서 또는 아이들을 만나는 동안 계속 훌쩍거리려 했습니다. 가슴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슬픔과 그리움이, 회한과 갈망이 한데 뒤범벅되어 내면을 끓어오르게 했습니다. 식지 않는 사랑으로, 결코 마르지 않을 눈물로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그녀는 여정에서 만난 평화의 샘물을 우리들에게 넉넉히 전해 주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맨 먼저 펼치면 만나게 되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 평화순례를 떠난 곳곳에 배어져 우리들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거나 한 건지, 그리고 서서히 외부로 향한 질문들이 내면을 향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평화가 되지 않으면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일상이 평화가 되어야 함을 스스로 답하게 됩니다. 그녀의 평화여행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처구니없고 부조리한 침략으로 규정될 이라크의 참상과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우는 것으로 평화가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울 수 있을 때 평화는 시작됩니다.” 인간 방패로 간 이라크에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모조리 파괴된 상황에서, 팔 다리가 잘려 나가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참상의 현장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의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곳에서 평화가 싹트고 꽃피우는 것을, 이라크 침략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역설하지 않고서도 이토록 정확하게 우리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무관심과 도피의 자리에서 뛰쳐나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담겨진 것을 쏟아내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사랑이 인도하는 대로 평화를 쫓아 움직인 것이죠.

평화는 관념이나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그래서 누구나 평화가 될 수 있어야 함을 깨우치기 위해 임영신은 그녀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현장들을 잔잔하게 소개해 줍니다. 분쟁지역을 돌아다니며 평화여행을 하고 있는 피스 보트에서 만났던 젊은이들, 공동체를 만들어 평화를 실현하는 이들의 헌신과 기도, 공정무역을 통해 이웃의 가난과 소외를 극복하려는 이들의 감동적인 삶의 고백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또한 임영신의 평화여행은 가끔은 신비롭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의 어루만짐이 기적 같은 만남이나 보살핌으로 다가서는 것을 전혀 우연이 아니라 감사와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 땅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 속에 신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의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질병과 환경 재난, 기아와 정신적 빈곤의 이수라장이 언제쯤에야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 지, 그러나 임영신이 평화여행을 통해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평화의 세상은 실현될 수 없을지라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바로 평화이며 평화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티그리스 강가에서 따스한 차와 쿠키를, 떠나지 않는 미소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당신이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루미의 시를 비틀어 우리 자신이 평화임을 표현해 봅니다.

상처와 고통이라면 어느 나라 못지않은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가는 임영신에게는 아마도 이 책은 앞으로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나긴 평화여정의 전주곡에 불과할 것입니다. 평화가 상실된 현장에서 기어코 찾아내어 만나야 할 희망의 사람들에 관한 그녀의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들, 욕심에 찌들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이들, 가치를 위해 살고 싶으나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은 묻고 답해 줍니다.

“너 평화의 사람이 되지 않을래?”  
“참 좋다.” 

